천재적인 귀로 음을 감별하는,
클래식계의 소믈리에

구자범이 카라얀의 나라 독일에서 단박에 음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음감 때문이었다. 또 만하임 음대에서 지휘학과 학생으로는 개교 이래 최초로 졸업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하며 수석 졸업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의 남다른 절대음감이 한몫을 했다. 그의 절대음감은 전문가들조차 '개의 청력을 지녔다' 고 혀를 두를 만큼 초절정의 음감이다. 그는 만하임음대 시절 만하임대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절대음감 소유자에 대한 실험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1995

년 군대를 제대하고 철학 전공 대학원생이던 스물다섯 청년은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세계적 지휘자의 꿈을 안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그 나이가 되도록 전문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는 독일어도 잘 못하는 처지였다.

만학의 열정이라고 격려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시도로 보였다. 국내 음대도 졸업 못한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거느린 독일에서 지휘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무모한 시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축복으로 시작됐다.

그를 테스트한 독일 만하임 음대의 교수들이 "당신은 절대음감을 타고났다"면서 만장일치로 입학을 허가해줬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학부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어학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당분간 영어로 수업을 해주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10년 뒤인 2005년 말 하노버국립오페라극장 수석상임지휘자에 선임된 구자범(36)이다. 음악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기를 맞은 그는 마침 10년간의 독일생활로 인한 지독한 향수병을 치유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휴가를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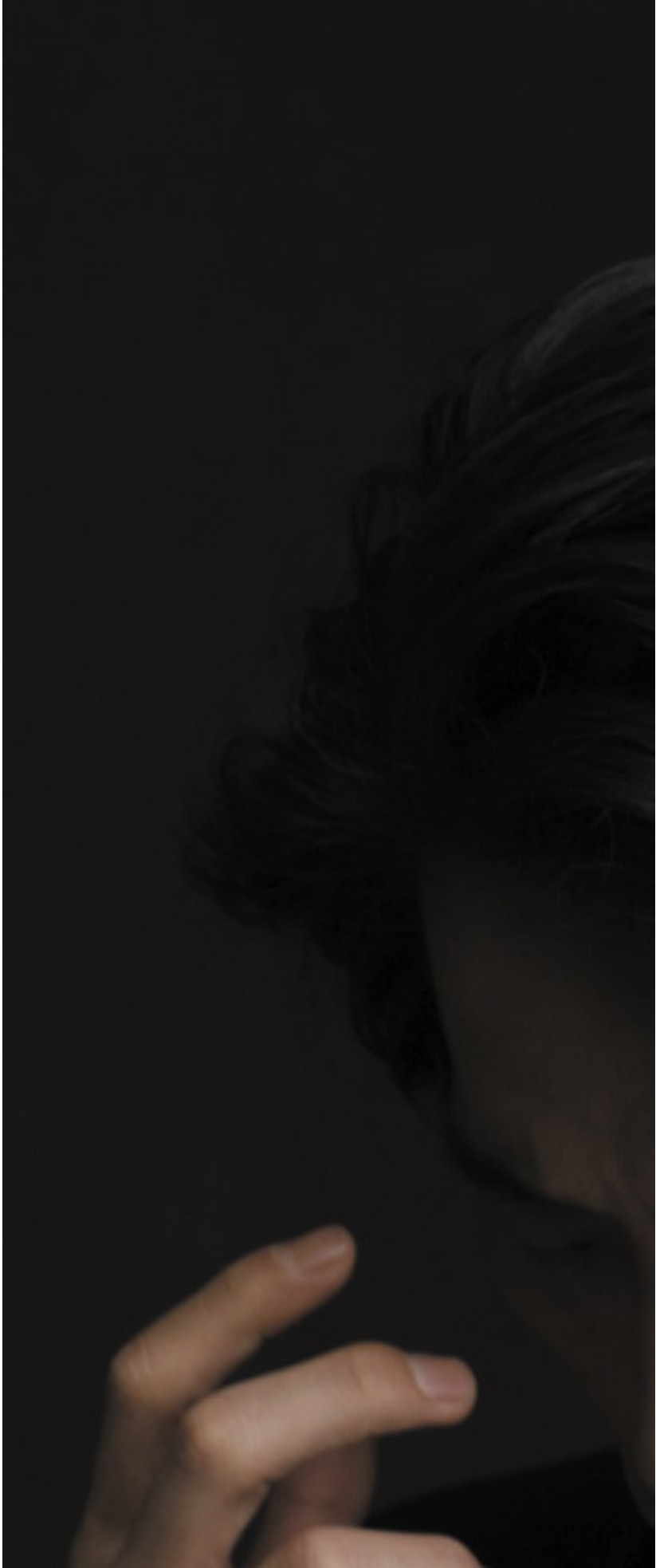
덕분에 한국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된 그는 9월 하노버극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간만의 여유를 갖게 됐다. 그 기간을 이용해 국립오페라단의 「투란도트」 전국 순회공연과 서울시향의 정기연주회에서 잇따라 지휘봉을 잡기로 한 그의 음악세계를 뒤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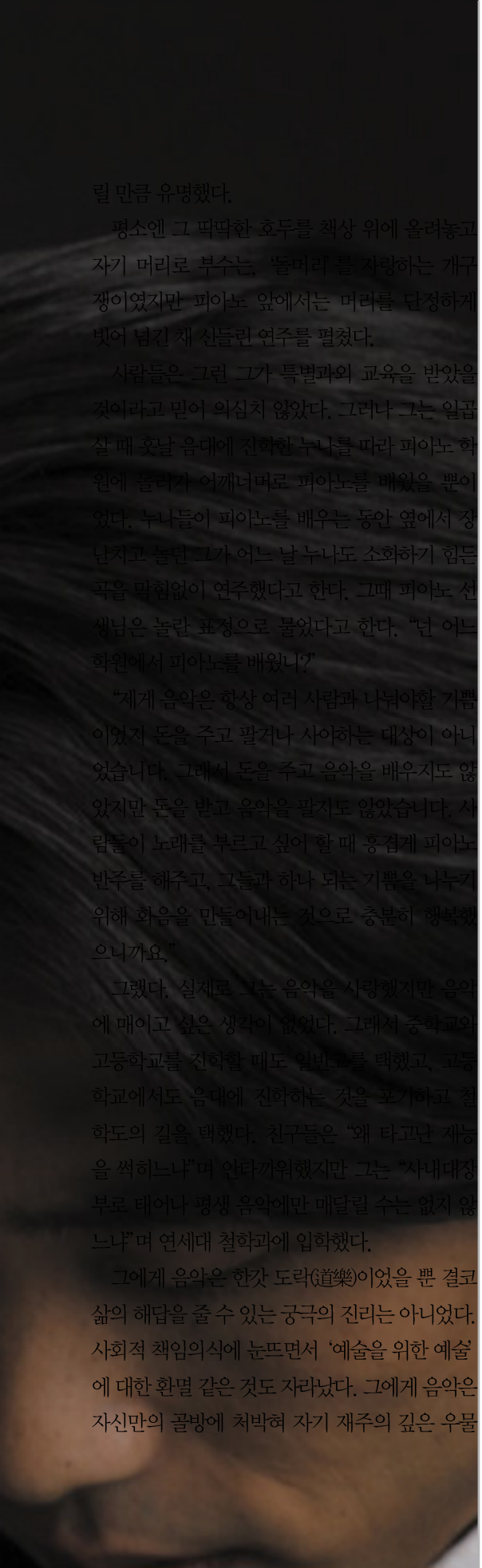
권 재 현 ·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프렐류드-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신동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시절 각종 피아노대회 상을 휩쓸었고, 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잠실의 정트리오' 로 불

구자범은 어릴 적부터 음악신동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시절 각종 피아노대회 상을 휩쓸었고, 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잠실의 정트리오'로 불릴 만큼 유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곱 살 때 훗날 음대에 진학한 누나를 따라 피아노 학원에 놀러가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웠을 뿐이었다. 실제로 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음악에 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일반고를 택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음대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철학도의 길을 택했다. 그에게 음악은 한갓 도락(道樂)이었을 뿐 결코 삶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궁극의 진리는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의식에 눈뜨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환멸 같은 것도 자라났다.





릴 만큼 유명했다.

평소엔 그 딱딱한 호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기 머리로 부수는, '돌머리'를 자랑하는 개구쟁이였지만 피아노 앞에서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신들린 연주를 펼쳤다.

사람들은 그런 그가 특별과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곱 살 때 훗날 음대에 진학한 누나를 따라 피아노 학원에 들러가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웠을 뿐이었다. 누나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옆에서 장난치고 놀던 그가 어느 날 누나도 소화하기 힘든 곡을 막힘없이 연주했다고 한다. 그때 피아노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고 한다. "넌 어느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니?"

"제게 음악은 항상 여러 사람과 나눠야할 기쁨이었지 돈을 주고 팔거나 사야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음악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돈을 받고 음악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할 때 흥겹게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그들과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랬다. 실제로 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음악에 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일반고를 택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음대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철학도의 길을 택했다. 친구들은 "왜 타고난 재능을 썩히느냐"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평생 음악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그에게 음악은 한갓 도락(道樂)이었을 뿐 결코 삶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궁극의 진리는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의식에 눈뜨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환멸 같은 것도 자라났다. 그에게 음악은 자신만의 골방에 처박혀 자기 재주의 깊은 우물 밑바닥까지 긁어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햇살 아래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느티나무 같은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 흐르는 음악적 재능은 마치 무병(巫病)처럼 그를 괴롭혔다. 길거리를 걸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무리 그 턴테이블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이처럼 어떤 음악의 환청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을 '귀벌레(earworm)'라고 하는데 그는 외부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한 이 귀벌레가 계속 울어댄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이 귀벌레가 말을 듣지 않아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이 귀벌레가 오페라 「카르멘」을 불러대는 통에 시험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 시험을 완전히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1991년 초 그는 이런 무병을 달래줄 뮤즈를 만났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같은 대학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었다.

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페라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를 불러준 그 여학생은 유명한 운동권이었지만 그의 재능이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설득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첼로연주를 펼친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나 유대인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주를 펼친 다니엘 바렌보임과 같은 음악가를 상기시키며…….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내부의 열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처럼 외면했던 음악에 대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 인터루드-귀를 위한 환상곡

예고는 물론 음대도 나오지 않은 그가 카리얀의 나라 독일에서 단박에 음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음감 때문이었다. 또 만하임 음대에서 지휘학과 학생으로는 개교 이래 최초로 졸업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하며 수석 졸업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의 남다른 절대음감이 한몫을 했다.

절대음감은 술잔을 부딪칠 때 쨍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음정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모든 음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다. 절대음감의 소유자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아무 건반이나 눌렀을 때 그 첫 음정을 맞출 수 있고, 휴대전화의 번호음만 듣고 그 전화번호를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절대음감은 음악전공자라고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는 훈련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절대음감은 전문가들조차 '개의 청력을 지녔다' 고 혀를 두를 만큼 초절정의 음감이다. 그는 만하임 음대 시절 만하임대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절대음감 소유자에 대한 실험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나라마다 440~445Hz로 조금씩 달리 규정하는 A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그 음이 442Hz인지, 443Hz인지까지 맞힐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절대음감이 오히려 최고의 지휘자가 되는 데는 장애가 됐다고 그는 말한다.

"저의 음감은 피아노의 평균율(조바꿈이 자연스럽도록 수학적으로 계산해 조율한 음율)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관현악기의 순정율(자연스런 음율이지만 조바꿈을 할 경우 어색해지는 음율)에는 적합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노래를 오래 부르다 보면 뒤에 가서는 음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 차이를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귀는 디지털시계와 같은 정밀성을 갖추고 있어 아날로그시계의 오차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디지털 음정을 지닌 피아노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날로그 음정으로 연주된다. 또 오페라가수와 합창단의 목소리도 오랜 시간 노래를 하다보면 처음 음정보다는 조금씩 떨어지는 아날로그 음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조화를 끌어내야할 지휘자에게는 디지털 귀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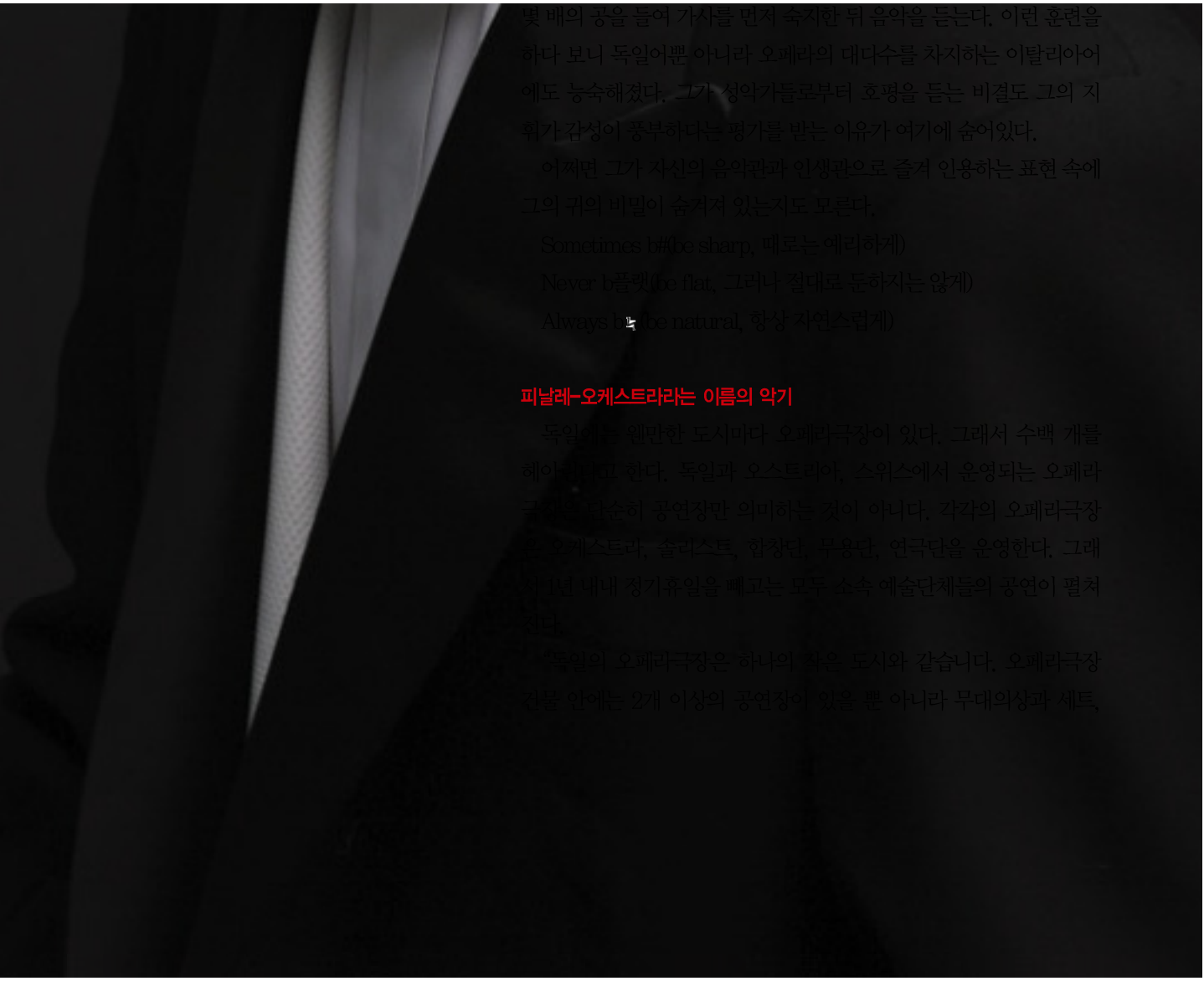
그는 처음에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하임 음대에서 그 못지않은 디지털 귀로 고생을 했던 클라우스 아르프 교수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그 문제점을 깨달았다. 또 아르프 교수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추어 남성 이카펠라 합창단을 지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음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들의 아날로그 음정에 맞춰 자신의 귀를 둔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특별한 음감이 음악인에게는 축복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일종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보통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 악기를 개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로 듣지만 저는 각각의 악기연주가 따로따로 들립니다. 이 때문에 가사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음감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음악을 들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우뇌만 활성화하는데 비해 절대음감을 지닌 사람들은 좌뇌의 언어영역도 동시에 활성화되더군요. 실제로 저는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언어로 들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사만 들어야 하는 좌뇌가 가사와 음정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니까요."

이 때문에 그는 오페라를 지휘할 때 남들보다

"저는 지휘자를 좋은 포도주를 감별해주는 소믈리에에 즐겨 비유합니다. 포도주가 기후, 연도, 품종, 성속도, 제조기술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천양지차의 맛을 내듯 음악도 작곡자, 지휘자, 연주자와 악기의 기종, 시대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변화무쌍한 맛을 내게 됩니다. 소믈리에가 남다른 혀를 통해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심오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주듯이 저도 남다른 귀를 통해 음악의 풍성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뿐입니다."



몇 배의 공을 들여 가사를 먼저 숙지한 뒤 음악을 듣는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 독일어뿐 아니라 오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어에도 능숙해졌다. 그가 성악가들로부터 호평을 듣는 비결도 그의 지휘가 감성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음악관과 인생관으로 즐겨 인용하는 표현 속에 그의 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Sometimes b#(be sharp, 때로는 예리하게)

Never b플랫(be flat, 그러나 절대로 둔하지는 않게)

Always b♮(be natural, 항상 자연스럽게)

## 피날레-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의 악기

독일에는 웬만한 도시마다 오페라극장이 있다. 그래서 수백 개를 헤아리기도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오페라극장은 단순히 공연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오페라극장은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일년 내내 정기휴일을 빼고는 모두 소속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독일의 오페라극장은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오페라극장 건물 안에는 2개 이상의 공연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대의상과 세트,

구두를 직접 제작하는 공장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게는 1,0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를린 필은 오페라극장과 독립된 오케스트라지만 그와 함께 세계 3대 오케스트라에 꼽히는 빈 필만 해도 빈 오페라극장 소속의 오케스트라다. 그만큼 독일에서 오페라극장 소속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최정상급이라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같은 오페라극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등급이 있다. 그가 상임지휘자(카펠 마이스터)로 첫 출발한 하겐 오페라극장은 중간 수준이고 그 이후 다름슈타트 오페라극장은 A급이다. 하노버 극장은 같은 A등급 중에서도 베를린, 쾰른, 뮌헨, 함부르크와 같은 반열의 특A급 오페라극장으로 분류된다.

수석상임지휘자는 그 극장에서 이뤄지는 음악 공연 중에서 대표적 공연의 지휘를 맡는다. 워낙 공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상임지휘자들이 분담을 하지만 음악연주에 관한한 수석상임이 그 오페라극장의 얼굴이다. 오페라극장에서 총감독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이다.

"독일에서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악기고 지휘자는 그 악기의 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수석 상임지위자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상임지휘자들은 그 악기를 빌려서 연주만 할 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는 지휘자를 초빙할 경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주지만 독일에서는 일체의 리허설 없이 바로 무대에서 지휘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하노버오페라극장이 수석상임지휘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를 포함한 4명의 지휘자를 초청해 오페라지휘를 맡겼을 때도 오페라 가수들과는 리허설 시간이 있었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는 공연 당일 무대에서 첫 인사를 나눴다.

"독일에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악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는 자신들이 완벽히 준비된 악기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지휘자는 오로지 지휘봉으로만 말하라'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돼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상임지휘자를 뜻하는 카펠마이스터는 어떤 오케스트라라도 즉석에서 연주를 해낼 수 있는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자처하는 독일에서 그런 카펠마이스터 중에서도 수석의 자리를 꿰찬 그가 꿈꾸는 지휘자상은 무엇일까.

"저는 지휘자를 좋은 포도주를 감별해주는 소믈리에에 즐겨 비유합니다. 포도주가 기후, 연도, 품종, 성숙도, 제조기술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천양지차의 맛을 내듯 음악도 작곡자, 지휘자, 연주자와 악기의 기종, 시대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변화무쌍한 맛을 내게 됩니다. 소믈리에가 남다른 혀를 통해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심오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주듯이 저도 남다른 귀를 통해 음악의 풍성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의 음악가적 역할 모델은 윤이상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생일은 윤이상의 생일과 같은 9월 17일이다. 그의 휴대전화 끝 번호는 윤이상이 태어난 해인 1917년이다.

"저는 아직도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음악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인간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저는 아직도 음악 보다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P.S. 그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연애를 다시 시작했다.